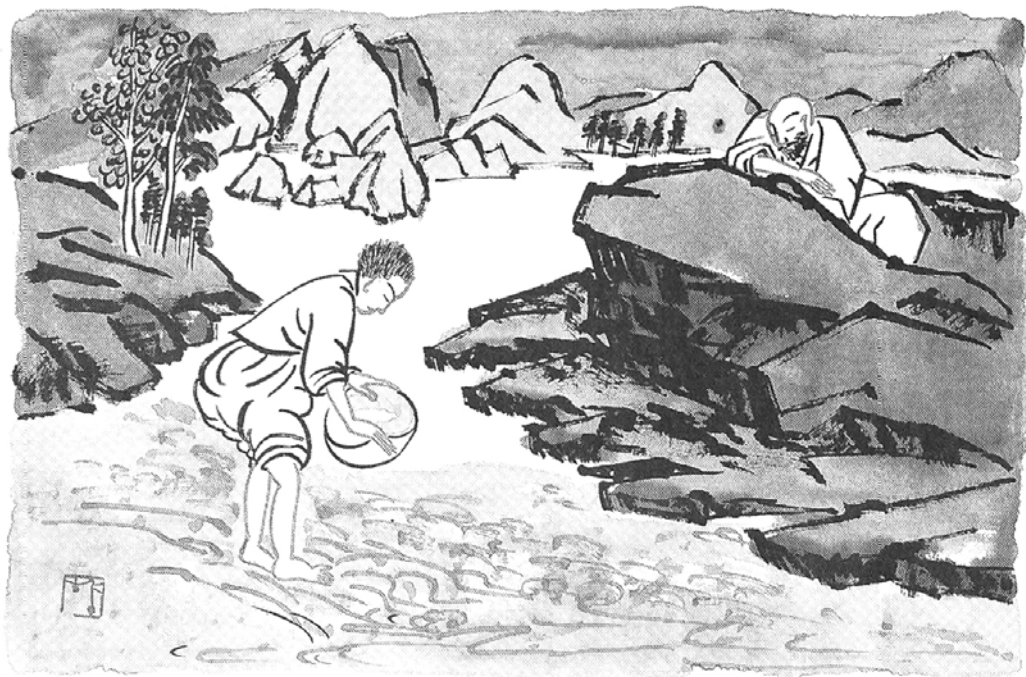


고은 불교대학 소설



무욕도의 인담과 우녀

무욕도를 전생으로 하고 그곳을 떠난 사람들과 달리 아직껏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인담과 우녀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옛이야기 속의 오누이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인담의 그 젊은 기운도 어느 정도 기울어져서 50세를 넘고 있었다. 우녀도 무욕도로 오기 전의 그 정신이상 상태가 이제 눈을 씻고도 보이지 않는 수명으로 넘쳐서 40세의 원숙한 여인으로 언뜻 광배(光背)까지 서려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정진은 어떤 규칙도 없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인담이 우녀를 가르칠 나위가 아니고 우녀가 인담을 앞질러 이끌어 갈 처지도 아니게 그들의 수준은 마치 짜 맞춘 것처럼 서로 한 경지에 이르렀다.

한 동안 무욕도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우세해질 때에는 우녀의 만만치 않은 위엄에 의해서 이곳의 화상이었던 인담까지도 우녀의 뜻에 따르는 형편이었다.

그 뒤로 두 사람만이 남겨졌을 때는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일 까닭이 없이 서로 의가 좋은 동료로서 굳이 정신의 수준따위에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지 남매와 같기도 하지만 부부와 같기도 하였다.

실지로 이 섬의 산꼭대기 토굴이나 그 아래의 별채는 헐리고 본채에서 두사람은 동거하였다. 서로 뼈속의 내력까지 아는

사이이고 서로 마음 속의 동작도 맑은 물속에 헤엄치는 고기들처럼 훤히 짐작하는 사이인데 유난스럽게 음양을 구별할 노릇도 아니어서였는지 그들은 한방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육지의 신도들이야 독실한 몇사람이 이들의 양식과 그밖의 필수품을 대가 위해서 그쪽의 배가 한달에 서너차례 건너오거나 그것도 아닐 경우 인담이 때때를 저어 다녀오면 되었다.

그런 것 말고는 무욕도는 옛날의 무인도로 있던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이제 파도소리와 파도소리 속의 갈매기 울

오십대 인담과 사십에 들어선 우녀는 마치 짜 맞춘듯 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남매같이 부부같이 지냈다

음소리 따위에 흠뻑 과몰입해서 어떤 인간적인 것도 개입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두 사람도 인간이기보다 이 무인도의 바닷가 바위에 기어오르는 작은 계들과 닮았는 자연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터였다.

그들에게는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이 하나를 저 세상으로 떠난 뒤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힘에 의존할 까닭도 없고 그들 자신의 그때그때에 따라 물이 뜨겁고 물이 젖는 것과 같은 상태의

스스로의 세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바에야 굳이 노자가 나타나 무위를 일컬을 것도 없거니와 공자가 나타나 이름(名)을 내세워 노자의 이름 없음(無名)과 어긋날 것도 없었다.

그래서 무욕도는 자연의 섬이고 그 섬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스승이라면 석가(佛)보다 자연석가(自然釋迦)인 것이다. 인담도 우녀도 자연으로 깨달거나 자연으로 그 깨달음을 버리거나 하면 되었다.

정작 사람들의 체취가 거의 없어진 관이라 바다 전체와 섬 전체가 충분히 살아나서 그 기운으로 인담과 우녀는 자국이 눈을 감고 수평선 너머의 보이지 않는 배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조차도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지내는 어느날 인담이 낮잠을 자는데 그 잠깐 사이의 낮잠의 꿈 속에 오래동안 있어 버리고 있던 스승 담인이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한 수행자에게 꿈속에서 맺었던 사자(師者)로써 고려시대의 스승이 나타난 것도 실로 망각 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자연이었던가. 자연오도(自然悟道)였던가.

명 인담도 스승의 범명 담인을 거꾸로 해서 지어졌던 일조차도 이제는 아무도 알 까닭이 없다.

꿈에 나타난 스승 담인은 지난 날 꿈에 나타났던 스승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지난 날에 나타났을 때는 조선 반도 중부의 한 군데였으나 이번에 나타난 스승 둘레에는 흰 구름이 움직이는 곳이어서 마치 스승 담인이 그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임춘(林椿)의 후신이 정작 임춘의 시를 그 자신의 전생에서 지은 것도 몰랐거니와 그대가 임춘의 시를 잘 찾아내어 세상에 전한 공덕과 함께 이제 수행의 공덕이 더해졌으니... 그대의 무욕도 인연도 다할만한 때에 이르렀구나.”

구름 위에 서있는 것 같은 스승은 그러나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뒤의 사실을 생략한 채 할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다.

인담은 그런 스승의 이야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무욕도에 건너온 불이가 임춘의 후신으로 된 것과 인담이 임춘의 시를 암굴 속에서 찾아온 것에 대한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꿈속에서의 인담은 오직 고개를 숙였다가 열릴 스승 담인의 하심(下心)이 깃들여있는 맑은 모습을 우러러 볼 따름이었다.

“부모와 임금 섬기는 일도 끊어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어찌 출가 사문(沙門)이 되어서도 스승이니 뉘니하고 집착하는가. 마땅히 그대는 나를 잊어라. 이로부터 나를 스승으로 삼는 일은 그동안의 공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일리라. ...이제 그대와 함께 살이온 사람과 심신을 함께 하여라.”

“스승이시여.”

라고 외쳤으나 말이 되이지 않았다.

스승 담인은 구름 위에 선채로 점점 멀어 떠나가는 것이었다. 인담은 꿈속에서 밟히고 스승을 불러보았으나 끝내 말이 되지 않은 대신 그 꿈에서 깨어났다.

실로 소중한 꿈이었다. 늦은 불날의 바위등성에서 잠들었던 인담의 몸에는 흥건하게 땀이 번져있었다. 바다는 오랫동안 고즈넉하였다. 잔물결은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갈매기가 쉬는 동안인데 갈매기 대신

이고 있게 되었다. 그가 꿈의 의미에 각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만 우녀의 용공 꿈 때문에 그만 두었다.

어느덧 봄날이 덧없이 하루가 다하였다. 해가 수평선 밑으로 붉은 빛을 쏟으면서 빠진 뒤의 어스름도 곧 새로운 어둠에 먹혀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가벼운 저녁 공양을 마치고 밤새도록 긴 꿈이나 꾸어보자듯이 밤 선정(禪定)은 그만두고 잠자리를 폈다.

아랫목에 우녀가 눕고 윗목에 인담이 누웠다. 언제나처럼.

그들은 이따금 서로 몸이 닿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만의 밤일인데 몸이 닿으면 어떻게 몸이 닿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이미 그런 일에 굳이 예민할 것도 없게 서로 낮익은 상태였다.

인담의 몸이 할 때는 아예 우녀가 그를 껴안아 찬 기운을 녹여주는 일도 있었고 한겨울의 추운 날은 솜재 한 이불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합해서 지어 하였다.

그러나 늘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오늘밤도 그들은 따로 따로 일찍 잠을 청하였다.

다음날 우녀가 먼저 밖에 나갔다. 여짜다가 새벽 예불시간을 지나쳐도록 잠을

자던 것이다. 이런 일을 두 사람의 신심이 없어졌다던가 수행의 뜻이 멀리 떠나갔다면 하고 말하기보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어느덧 몸의 상태에 맡겨져 있었다고 말해야 옳았다.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몸에 의해서 사는 일이라 말할 파격이었다. 마음의 가문(家門)에서 사대(四大)가 모여 만들어진 덧없는 것, 허망한 것으로서의 몸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배교(背教)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놓아기르는 터였다. 그러므로 마음의 가문은 과연 무애의 가문이기도 하였다.

우녀에 뒤따라 인담도 느적느적 잠자리를 치우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어제까지 하늘 깊숙히까지 맑았던 날씨가 잔뜩 흐려졌다. 구름들이 마치 무욕도 꼭대기까지 파문을 듯이 내려와 있었다.

“하늘도 심심풀이로 공부하다가 때려치운 모양이오. 그래서 구름이나 어질러 놓고 있는게지”라고 인담이 한마디 꺼냈다.

그런 혼잣말을 그대대로 두지 않고 있다가 우녀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소리인지 그 자신도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게 한마디 꺼냈다.

“하늘이 저런걸 보니 땅이나 바다가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림·조항숙



76

“수행하는 이에게는 죽음도 공부... 이제 그대도...” 꿈속에서 들은 스승의 말을 인담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제비들이 본체의 처마에 집을 짓고 이 섬을 다 차지하고 바다 위를 날아 다녔다.

“우녀님!”이라고 인담이 저쪽 샘물 가까이 있는 우녀를 불렀다.

두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이였다. 바지가랑이를 정강이까지 걸어올린 우녀의 종아리가 방금 밝은 무우처럼 하얗다. 얼굴이 바다바람에 그을려서 늘 붉은대하지만 옷 속의 살결은 잘 보호되어 있는 셈이었다.

“나 스승의 꿈을 꾸었소.”

이제 그들의 말도 반말에 가까웠다.

“호호. 공부 못한다고 꾸짖으실디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녀도 인담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삭도(朔刀)를 댄지 오래되어 제법 머리가 길어진 데를 한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실은 나도 아까 앉아서 졸다가 그 목조(默照)의 무념 가운데 바다 밑 용궁의 꿈을 꾸었지요.”

“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심심풀이가 될 일이 생길 모양이군.”

“인담님. 꿈 따위나 가지고 놀지 마시다. 꿈보다 더 꿈인 것이 이 생시(生時) 아닙니까.”

“하기는.”

“하기는 우리 두사람 금실 종이라고 다 큰 도반들 다 떠난 이래로 우리는 너무 심심하게 살아왔어요.”

“하기는...”

인담은 우녀의 말이 한 발 앞서는 것이나 즐기며 “하기는...”이라고 고개를 끄덕

“...그러구나. 임춘의 후신이야 지금쯤은 사바세계의 어딘가에 태어나서 사막을 건너 어느 암굴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그대는 아직도 그대의 거처에서 꾸준하구나. 진실로 가혹한 것은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스승이시여.”

라고 인담이 입을 열었으나 말이 되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방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도 그대의 거처를 떠날 때에 이르렀구나. ...수행하는 이에게는 죽음도 공부이니라.”

“...”

성아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붓다에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호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침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와 디로 브히비(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에도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 나는 조약돌로 본다. '나는 조약돌로 본다.' 라는 말입니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양치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지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으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친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소 라즈니쉬 감리 /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문 전2권 / 각권 7,500원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한권이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읽게 될 수 있는 경전이다.